매일 안심(安心) 하는 법

(에스겔 29:1~21)

1.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3.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4.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5.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6.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7.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매일 안심(安心)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매일 안심(安心)하는 법'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마음의 작용인 바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람을 임의로 소원과 소망으로 나누었습니다. 소원은 땅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바람이라면, 소망은 땅에 사는 동안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부자 되고자 하는 바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안심이라는 단어를 임의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심은 걱정이 없는 편안한 마음 상태로써 안정감과 평강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정감은 이 세상 조건을 통해서 얻는 안심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하늘의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안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심이라는 단어는 편안할 안(安)과 마음 심(心)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여기서 편안할 안(安)의 어원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글자는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아무 걱정 없이 집안에 앉아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더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여자 여(女)는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릎을 꿇고 깍지를 끼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경건하게 신을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갓머리(宀)는 사당(집)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사당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깍지 낀 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안심이란 집에서 신을 섬김을 통해 얻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식(安息)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식(息)자가 '쉴 식, 호흡할 식'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안식의 의미를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이미 한자 자체가 사당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손을 깍지 끼고 자기가 믿는 신을 호흡하며 쉬는 상태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다 중단된 상태에서 신이 거하는 사당으로 들어가 신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자가 만들어질 당시에 염두에 둔 신은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안정감과 평강의 차이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깍지 낀 동안에는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세상일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만 호흡하는 상태가 되어야 평강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인간을 타락시키며 이 세상의 조건을 통해서 안정감을 획득할 수 있다고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채로 이 땅의 환경의 조건이나 처지를 개선시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안정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안정감이란 본래 신을 호흡할 때에 주어질 수 있는 안심을 변조하는 것이고 신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참 안심을 도둑질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뜸과 동시에 가족이든 일이든 세상의 대상을 마음에 담기에 세상에 휩쓸림은 곧바로 시작됩니다. 이때에 불안과 걱정을 안정감이 느껴지는 상황까지 환경을 바꾸어 나가려 행동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래 아침에 눈을 떠서 만나는 처음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눈 떠서 처음 만난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호흡한다는 안식의 의미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혀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심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안심의 삶을 사는 것이야 말로 인간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자 눈 뜨고 만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 불안이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보아도 배우자를 보아도 일을 생각해도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불안에 시달리는 동안에 하는 모든 행동은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 불안을 제거하려 하지 않고 삶의 환경을 바꾸어서 안정감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불안과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조건을 바꿈으로써 주어지리라 믿어지는 안심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근본적으로 왜곡된 삶의 형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애굽의 바로 호브라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에 바로에 대한 심판의 내용과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애굽이 바벨론의 의해 참담하게 멸망할 것이 예언되고, 마지막 절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덧붙여집니다. 앞장에서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이 주어진 후에 선민의 회복이 언급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먼저 1~16절까지는 애굽이 받을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언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BC.597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BC.587년 1월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7~20절까지는 애굽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하리라는 예언인데 BC.597년을 기준으로 27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언은 바로를 나일강에 사는 큰 악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가 심판을 받게 될 주된 이유가 됩니다.

악어는 나일강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이 악어가 갈대밭에서 쉬다가 기어 나와서 나일강의 주인처럼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예나 지금이나 애굽의 심장이었습니다. 나일강 유역은 아프리카 전체 대륙의 1/10이나 되는 거대한 영토입니다. 요새는 나일강 유역이 이집트와 수단과 에티오피아 등으로 나누어졌지만 예전에는 모두 애굽의 영토였습니다. 이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홍수로 범람할 때마다 비옥한 퇴적층과 삼각주가 만들어졌습니다. 뿌리는 대로 곡식이 자라는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애굽은 이러한 천혜의 조건을 바탕으로 그 어떤 나라도 흉내 낼 수 없는 안정과 풍요를 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위기는 있었을지라도 지속적으로 중근동과 지중해 지역의 최강자로써 면모를 유지하였습니다.

선민 이스라엘도 이러한 애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이러한 선민들의 태도를 끊임없이 지적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선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6~7절에서도 선민들이 애굽을 든든한 지팡이처럼 여겼으나 그것이 실은 갈대에 불과하여 부러져서 팔을 찌르게 한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이사야나 열왕기하에서도 등장합니다.

선민들이 이렇게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애굽을 의지하게 된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누리는 안정감을 똑같이 누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안정감이란 이 세상의 조건과 처지를 통해 얻게 되는 안심입니다. 이런 면에서 애굽은 정말 부러운 나라였습니다. 고대로부터 나일강의 생산력을 바탕으로 풍요로웠고 또 나일강과 이어지는 운하를 만들어 교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넓고 풍요로운 옥토와 수자원이 가져다주는 안정감을 제 것으로 여긴 바로의 심정이 본문에서 악어로 비유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바로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은 세상에서 안정감을 얻기 위해 바로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만들지 않은 나일강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안정감을 얻었던 바로와 같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게 안정감을 준다고 믿어지는 세상의 어떤 대상도 실제로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정감을 얻기 위해 내 것도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감의 대명사로 불리는 철밥통 직장들이 그러합니다. 의사를 비롯하여 특별한 업무의 전문가들이 가진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요새는 각종 부동산을 소유한 건물주로서의 삶이 안정감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노후 연금이나 은행에 보관해둔 현금들도 모두 안정감을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모든 장치들이 바로의 나일강과 같다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노후 연금은 당연히 내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 부은 돈으로 연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의사 자격증으로 의사를 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여긴다면 이 또한 제대로 된 신앙인의 태도는 아닙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이러한 일들을 안정감의 토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철밥통으로 여겨지는 직장, 부동산 수입, 노후 연금으로 안정감을 얻으려 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나일강을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 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자의 편안할 안(安)자가 사당에서 무릎 꿇고 깍지를 낀 자세로 신을 호흡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섬겨질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젖혀둔 채 살아갑니다. 그 대가로 불안과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깍지 낀 채로 살아가는 대신에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주어진 환경과 처지를 주무르게 되었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없어질 때까지 이것을 반복합니다.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삶에서 주어지는 대상들을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후 연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안정감을 얻으려 한다면 예수 믿기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안심은 연금으로 인한 안정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평강이어야 합니다. 순서가 결코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평강이 유지되는 삶이 바로 에덴의 삶이었습니다. 에덴에서의 삶은 불안과 걱정에서 빠져나와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눈을 뜬 후에 처음 한 일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호흡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호흡했다는 것은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몰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주어졌고 이러한 상태에서 에덴의 삶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자 하나님을 잃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던 평강도 사라졌

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불안과 걱정이 생겨났고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는 조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가치들을 내 것으로 착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나일강을 제 것으로 여기며 그로부터 안정감을 얻은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4층 빌딩의 주인이라서 그로부터 나오는 수입으로 안정감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일 강을 자기 것으로 여긴 바로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거나 누구와 만나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깍지 끼고 하나님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평강을 얻고 나면 내게 주어진 것들의 의미도 전혀 달라집니다. 부동산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할 대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통로가 됩니다. 나일강의 주인 행세를 하는 악어처럼 빌딩의 주인으로 행세할 수는 없습니다. 연금을 내 것으로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자격증을 내 것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안정감의 토대가 될 만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나일강의 주인 행세를 하는 악어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어는 히브리어로 '타닌'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큰 용이나 큰 뱀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라는 점에서 이러한 삶이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제외하는 일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걱정과 불안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의 조건을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걱정은 하나님을 젖혀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안(安)자의 의미대로 무릎 꿇고 깍지를 끼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평강은 내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만 시작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 때문에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을 개선시킴으로써 안정감을 누리려고 할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할지라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알이나 불상과 똑같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불안한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몸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또한 마귀의 속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도 안심의 주인공이셨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빠져나가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풍랑과 안심에 아무런 관련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하늘을 호흡하는 가운데 안심이 주어지는 평강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이나 처지 때문에 걱정이나 근심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과 처지를 바꾸어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단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악어의 몸짓이고 뱀의 몸짓이고 용의 몸짓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받아들이실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안과 걱정의 원인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불안과 걱정은 환경이나 처지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임을 단호하게 선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안심을 깨뜨리고 걱정과 불안을 주는 세상에 대해 죽은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깍지 끼면 어디도 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더욱 완벽하게 완성하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게 되고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에덴동산이 됩니다.
설령 내가 빚더미에 앉아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심으로 평강을 얻는다면 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안을 누리는 동안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무오류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문제 또한 해결되어 갈 것입니다. 해결되어 가는 과정이 천천히 진행될지 급격하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매일 마음의 첫 번째 대상으로 하나님을 모셔 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원죄의 체질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세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안(安)자의 의미대로 무릎 꿇고 깍지 낀 것처럼 십자가에서 꼼짝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하늘에서 주어지는 안심의 단계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면 똑같은 직장에 나가고 똑같은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그곳은 에덴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수고와 고생을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 하겠지만,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자들은 애초에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평강을 가지고 삶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강을 가지고 있으면 삶에서 어떤 것도 내 것으로 여기며 도둑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 몸까지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내 몸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는 생각이 사라져버릴 때에 주어집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을 내 것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다는 증거 입니다. 노자가 “무욕이 대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지지 않은 것이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적 호연지기가 나타나는 삶을 한 번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십자가에서 무릎 꿇고 깍지 끼는 대신에 손도 발도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자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부활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면적으로 호흡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고 나면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될 것입니다.
이게 호연지기가 나타나는 대장부의 신앙이고 세상을 이기는 선민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런 삶의 가능성과 그 가능성이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오니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받겠습니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편안할 안(安)자를 스스로 그려내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주어지는 하늘로부터의 안심인 평강 뒤에 따라오는 모든 삶을 기쁨으로 가득한 에덴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